가족의 건강성이 전문대학생의 결혼태도 및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

Factors that influence family strength decision on marriage-childbirth plan

한 수 진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외래교수 - 주저자)
송 낙 길 (경민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Su-jin Han / Nak-gil Song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at "the components in marriage-childbirth plan have crucially important influence on family health" through analysis of structural model based on Walsh's 'family strength model'.

The analysis result demonstrates that since the measurement model is appropriate for this examination, it ensures that the three factors in marriage-childbirth plan are met by used measure. The result of the structural model illustrates that three components of marriage-childbirth pla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amily health. That is, the result supports the hypothesis mentioned above. From the result in the paper, there are two important implications remained.

주제어: 가족건강성, 결혼태도, 출산계획

Keywords: family strength, marriage, childbirth plan

I. 서 론

우리나라의 2012년 합계출산율은 1.30명(통계청, 2013)으로 저출산· 고령화현상은 한국사회의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 왔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물론 출산율의 저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결과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포괄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우리의 저출산·고령화현상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김혜영외, 2010).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살펴보면 인구학적 요인 중에서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독신풍조, 초혼연령의 상승과 여성의 교육수준향상(은기수, 2001; 김승권, 2004; 손홍숙, 2004; 강경숙외, 2005; Bumpass & choe, 2003)등 이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부담 증가(도미향, 2005),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손홍숙, 2004),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육아지원 인프라 미흡(김승권, 2004; 손홍숙, 2004)등을 들고 있다. 또한 문화적 요인으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강복화, 2003; 김승권, 2004; 손홍숙, 2004; 도미향, 2005)등을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현재와 같은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다.

인간은 가족을 떠나서는 기본적인 욕구마저 충족시키기가 어려우며, 가족 안에서 성장하고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전통사회에서 결혼을 필수조건으로 인식했던 시대와 달리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는 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성교제를 경험하고 있으나 현재 데이트 상대자를 대부분 결혼상대자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친구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대학생의 결혼의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학생 10명 중 1명 이상이 결혼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백경숙외, 2013재인용). 이와 같은 결혼관의 변화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와 연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백경숙외, 2013). 이러한 결혼에 대한 의식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어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인기 초기부터 누적되는 자신의 가치관이다(도미향, 2011).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태도나 자녀에 대한 계획들은 그들이 속한 가족의 경험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화목하고 안정된 가정의 분위기는 직·간접적으로 자녀의 결혼이나 가족가치관과 같은 기본적 태도형성에 바탕이 되며(이지은, 1996), 부모의 이혼이나 갈등을 경험한 자녀들은 결혼에 대해 비호의적이며, 이혼을 좀 더 쉽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이종원, 2002). 또한 자녀가 인식하는 가정의 화목정도는 화목하다고 느낄수록 결혼

이미지가 높았고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할수록 결혼이미지는 떨어졌다(송정아, 2002). 이처럼 원가족의 경험은 결혼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백경숙 외, 2013).

가족에 대한 부정적, 병리적 측면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대사회에서 건강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2005년부터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으로 사회복지학이나 가족학 연구에서 가족의 건강성이 강조되고 있다. 건강한 가족이란 개인적 차원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관계 차원에서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기능적이고 원만하며, 가족체계가 잘 유지되면서 가족가치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가족(유영주, 1994)을 말한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의 결혼관이 점차 변화하고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족에서 경험되는 가족건강성과 같은 변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인식(김보경 외, 2005; 도미향, 2011; 김혜숙 외, 2011; 김한곤 외, 2012; 이보람 외, 2012)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가족의 건강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결혼만족과 가족건강성과의 관계(홍성례 외, 2000; 최정혜, 2005, 2006; 강수정 외, 2010)의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결혼이후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가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원가족의 건강성이 경험되지 못하다면 결혼에 대한 이미지 및 가치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은 개인에게 있어서 성장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기제로써 기능하며, 가족구성원간의 관계 및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개인의 가치관 형성이나 사회화과정의 근간(김경신 외, 2008)이 되므로 개인의 원가족에서의 건강한 가정의 경험은 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계획과 출산의지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본다.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인 차원으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슈이며 출산율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김혜숙 외, 201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의 건강성은 대학생의 심리적 환경으로 매우 중요한 환경인데 비해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미래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즉, 가족의 건강성을 통해 대학생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하는 가족내의 유대감,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간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간의 가치체계의 공유가 현재 그들의 결혼에 대한 태도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전문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수준은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가족의 건강성이 결혼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가족건강성의 개념

많은 연구자들은 앞으로 이혼하는 가족이 증가하고 미혼모의 수가 증가하여 한부모 또는 부모 없는 가족이 늘어남으로써 가족이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인용하면서 현대 사회의 가족상황을 가족의 쇠퇴나 붕괴로 간주하기도 한다(김현주 외, 2011재인용). 그만큼 오늘날의 가족은 구조, 기능 및 유형의 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의 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가족이 얼마나 문제가 없는지를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가족이 얼마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극복할 수 있는 탄력성을 개발할 필요성은 증가하게 되었다(김현주 외,2011). 따라서 최근 사회복지나 가족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관점이 건강가족적관점(Family Strengths Perspective)이다. 건강가족의 관점은 가족의 병리적・부정적 측면보다 가족의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며, 건강가족을 형성하게 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가족 내의 계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가져오는 기초로 삼음으로써 가족문제나 기타 병리적인 가족의 특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유영주, 2001). 그럼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을 말하는가? Otto(1962)는 건강한 가족이란 긍정적인 가족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족원 간에 만족스러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며, 가족의 개인적 잠재력을 분 돋우는 사회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유형이라 정의하였고 건강가족의 강점은 가족생활주기를 거치면서 변화되며 가족성원들에게 풍부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Olson & Stinnett은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개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라 정의하고 건강가족은 가족의 외적 구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원 상호간의 내적과정에 중점을 둔자는 점을 강조하였다(유영주, 2004재인용). 따라서 건강가족은 가족원 간의 내적 관계와 가족이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건강가족의 특성에 다양한 연구가 여러 학자들에(Barnhill, 1979; Curran, 1983; Stinnett & DeFrain, 1985; Lewis, 1989; Beavers & Hampson, 2003)의해 제시되어 왔다. 대표적인 학자인 Olson & DeFrain(2006)은 감사와 애정,

헌신, 긍정적인 의사소통,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기, 정신적 안녕, 스트레스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등의 6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외국의 건강성 연구는 가족건강성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가족건강성을 실제적으로 가족복지를 위해 활용할 것인가의 실천적 문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황인실, 2003).

국내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서 유영주(1991)의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를 기점으로 건강가정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건강가정의 개념설정(서병숙, 1994; 유영주, 1994, 1995)과 가정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개발의 연구(어은주・유영주, 1995; 지영숙・이영호, 1998)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점차 연구는 건강가족의 특성(어은주・유영주, 1995; 허봉렬, 1996; 지영숙・이영호, 1998; 최선희, 1999; 유영주, 2004)을 밝히는 연구로 확대되었다. 한국도시가족이 생각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연구한 어은주・유영주(1995)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은 가족간의 유대, 가족간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를 공유하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가족의 건강성의 특성을 밝혀내는 것을 넘어 실제적으로 가족건강성을 가족복지를 위해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최정혜, 2006; 김현경외, 2009; 양남희, 2010; 신준섭외, 2011; 장성화외, 2013; 곽인숙, 2013)들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가정의 공통된 특성을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권대희・오윤자, 2004). 첫째,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며, 둘째,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셋째,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넷째, 가족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2.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이 대학생의 결혼태도 및 자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3년 10월에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는 전문대생, 즉, 결혼하지 않은 미혼상태의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의도적 편의표본 추출방식을 취하였다. 무성의한 응답을 포함해서 분석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 것을 제외한 274부를 활용하였다. 조사내용은 가족의 건강성, 결혼에 대한 태도, 자녀출산계획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이 98명(35.8%), 여학생이 176명(64.2%)으로 여학생이 많았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20세 이하가 96명(35%), 21~22세가 122명(44.5%), 23~24세가 52명(19%), 25세 이상이 4명(1.5%)순으로 21세~22세가 가장 많았다. 형제수는 본인 포함 1명이 205명(74.8%)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의 결혼 상태에서는 대부분 '현재 결혼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232명(84.7%)

이 응답을 하여 현재 결혼을 유지 하고 있다는 응답이 그 외에 다른 부모결혼상태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결혼생활만족을 살펴보면 '행복하다라는 응답이 94명(34.3%)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87명(31.8%), '매우 행복하다' 55명(20.1%), '행복하지 않다' 26명(9.5%), '매우 행복하지 않다' 12명(4.4%)순으로 응답하였다. 종합해보면 본 조사대상자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1~22세 가 주류를 형성하고 대부분 부모의 행복한 결혼유지 속에서 1명의 형제를 가지고 있었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274)

변 수		빈도(명)	퍼센트
성	남학생	98	35.8
	여학생	176	64.2
연령	20세 이하	96	35
	21-22세	122	44.5
	23-24세	52	19
	25세이상	4	1.5
형제 수	본인	25	9.1
	1명	205	74.8
	2명	35	12.8
	3명	6	2.2
	4명	2	0.7
	5명 이상	1	0.4
부모의 결혼상태	기혼	232	84.7
	별거	7	2.6
	이혼	23	8.4
	재혼	6	2.2
	사별	6	2.2
부모결혼생활만족	매우행복	55	20.1
	행복	94	34.3
	보통	87	31.8
	행복하지 않다	26	9.5
	매우 행복하지 않다	12	4.4

2. 측정도구

1) 조사대상자의 가족의 건강성

본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은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을 가지는 정도'로 정의하고 어은주・유영주(1995)의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6문항),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9문항)로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34문항으로 구성되고 각 항목은 4점의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은주・유영주(1995) 척도의 Cronbach's α값은 .94(가족원간의 유대) .91(가족원간의 의사소통) .88(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80(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의 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Varimax회전 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KMO=.961로 나타나 문항의 수와 요인의 수는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50이하의 요인 설명력이 낮은 6개의 문항을 삭제한 28개 문항 4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4개요인 28개 문항의 전체 누적설명력은 63.97%이었으며 Cronbach's α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결과, 전체 신뢰도는 α=.931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가족건강성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표

문 항	가족원간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 공유	가족원간 유대감
4.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751			
1.우리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684			
5.우리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가족원에게 더 친근하다	.603			
13.자기 자신의 개인적 문제를 가족에게 말할 수 있다	.594			
8.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으며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산다	.536			
9.우리가족은 화목하다	.526			
31.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519			
23.우리가족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직접 말한다		.758		
20.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한다		.655		

30.우리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559		
27.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는 다른 가족원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		.557		
26.우리는 서로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있다		.541		
21.우리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536		
6.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505		
24.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인다		.502		
32.우리가족은 관심사와 취미가 같다			.750	
29.우리가족만의 전통이 있다			.688	
34.우리는 가족의 규칙이나 가치관을 함께 만든다			.628	
11.우리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602	
22.우리가족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일치한다			.584	
12.우리가족의 가치관과 규칙은 명확하다			.558	
33.우리는 서로에 대해 애정을 표현한다			.550	
14.우리가족은 서로를 감싸준다				.688
3.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이 되도록 노력한다				.604
10.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598
16.우리가족은 서로를 존중해준다				.592
2.우리가족은 서로를 위하는 일을 한다				.578
15.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가족 모두가 책임을 동등하게 진다				.576
고유값	5.019	4.485	4.255	4.154
분산(%)	17.924	16.018	15.195	14.837
누적률(%)	17.924	33.942	49.137	63.973
Cronbach's α=.931	.951	.946	.961	.954

KMO .961
Bartlett χ^2=5188.500 (df=378) p=.000

2) 조사대상자의 결혼태도와 자녀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미정(2010)의 척도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은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은 4점의 척도로 되어 있다. 결혼태도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전통적임을 의미한다. 결혼태도에 대한 Cronbach's α=.688였다.

자녀의 출산인식에 관한 문항은 자녀에 대한 생각, 이상적인 자녀수, 실제 희망하는 자녀수, 출산계획의 이유 등에 대한 내용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8.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전문대학생들의 결혼태도와 자녀출산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포와 기술통계로 분석하였으며, 둘째, 부모의 결혼 상태 및 결혼생활 만족에 따른 가족건강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ANOVA)분석을 실시하고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자녀에 대한 생각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변인 및 하위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결혼에 대한 태도가 성별, 결혼계획,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가족의 건강성 수준

조사대상자들의 가족건강성을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다. 전문대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은 4점 만점에 평균 2.90으로 나타나 가족건강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별로 보면 '가족의 유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원간의 정서적인 관계가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심리・정서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다음이'가족 간 의사소통','문제해결 수행능력','가치체계의 공유'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최정혜, 2006; 김현경 외, 2009)와 비슷한 경향인데 '가족의 유대'가 가장 높고'가치체계의 공유'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가족 간의 결속은 강한데 반해 가족원간에 공유되는 가치관, 가족규범이나 가족규칙 등이 다른 영역들에 비해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조사대상자의 가족건강성 수준

(N=274)

구 분	M(SD)
전체 가족건강성	2.90(.53)
가족간 의사소통	2.95(.57)
문제해결 수행능력	2.93(.59)
가치체계공유	2.69(.59)
가족의 유대	3.05(.56)

1)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가족건강성 수준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Duncan의 사후검정결과 가족간 의사소통에서 기혼(M=3.00)과 사별(M=3.12)이 별거(M=2.41), 재혼(M=2.48)보다 가족간 의사소통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uncan의 사후검정결과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사별(M=3.29)이 재혼(M=2.58), 이혼(M=2.66), 별거(M=2.66)보다 가족간의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간의 가치체계공유에서도 사별(M=3.05)이 별거(M=2.29), 재혼(M=2.33), 이혼(M=2.44)보다 높게 나타나, 부모의 결혼상태가 사별인 경우가 가족원간 문제해결능력과 가치체계공유에서 별거, 재혼, 이혼의 경우보다 건강성수준이 높았다.

〈표 4〉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가족건강성 수준

		M	SD	Duncan	F	p
가족간 의사소통	기혼	3.00	.542	a	5.373	.000
	별거	2.41	.859	b		
	이혼	2.63	.549	ab		
	재혼	2.48	.902	b		
	사별	3.12	.246	a		
문제해결 능력	기혼	2.97	.582	ab	3.041	.018
	별거	2.66	.636	b		
	이혼	2.66	.448	b		
	재혼	2.58	.872	b		
	사별	3.29	.393	a		
가치체계 공유	기혼	2.72	.578	ab	3.214	.013
	별거	2.29	.680	b		
	이혼	2.44	.540	b		
	재혼	2.33	.879	b		

	사별	3.05	.233	a		
가족원간 유대	기혼	3.09	.556		2.637	.034
	별거	2.79	.614			
	이혼	2.81	.387			
	재혼	2.64	.945			
	사별	3.06	.443			

2) 부모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따른 가족 건강성 수준

부모의 결혼생활만족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가족간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가치체계공유, 가족원간 유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부모의 결혼생활만족이 높다고 응답한 조사자 일수록 가족간의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가치체계공유, 가족원간 유대감이 높아 가족건강성 수준이 높았다.

〈표 5〉 부모의 결혼생활만족도에 따른 가족 건강성 수준

		M	SD	Duncan	F	p
가족간 의사소통	매우행복	3.46	.385	a	42.192	.000
	행복	3.08	.399	b		
	보통	2.74	.465	c		
	행복하지않다	2.42	.531	d		
	매우행복하지않다	2.17	.784	e		
문제해결 능력	매우행복	3.46	.503	a	34.182	.000
	행복	3.04	.459	b		
	보통	2.71	.426	c		
	행복하지않다	2.44	.508	d		
	매우행복하지않다	2.32	.788	d		
가치체계 공유	매우행복	3.13	.588	a	23.337	.000
	행복	2.78	.520	b		
	보통	2.50	.434	c		
	행복하지않다	2.37	.454	c		
	매우행복하지않다	1.92	.696	d		
가족원간 유대	매우행복	3.54	.462	a	36.690	.000
	행복	3.19	.420	b		
	보통	2.81	.418	c		
	행복하지않다	2.63	.582	c		
	매우행복하지않다	2.36	.602	d		

2. 조사대상자의 결혼 계획

조사대상자의 결혼 계획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결혼계획이 있음이 209명(76.3%)으로 나타나 결혼계획이 없음 65명(2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조사대상자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신효영 외, 2008; 도미향, 2011; 김혜숙 외, 2011)와 일치하고 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결혼계획

문 항		빈도	퍼센트
결혼계획	있음	209	76.3%
	남자	74	35.4%
	여자	135	64.6%
	없음	65	23.7%
	남자	24	36.9%
	여자	41	63.1%

결혼의 주된 목적이'자녀를 갖는 일'인가에 대해 항목을 제시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결혼의 주된 목적은'자녀를 갖는 일'에 그렇지 않다가 남・녀 모두 48명, 118명으로 높게 나타나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의 출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혼의 행복도는 남・녀 모두'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그렇다'라고 대답한 학생수가 43명으로 비교적 높지만 여학생의 경우는'그렇지 않다'66명과 '그렇다' 79명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항목에서는 남학생의 경우'그렇다'가 98명 중 34명(34.7%)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경우는'그렇지 않다'가 176명 중 95명(54%)로 나타나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여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항목인'결혼보다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항목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나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7〉 결혼에 대한 태도

(단위: 명)

문항	성별	매우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X^2, p
결혼의 주된 목적 (자녀를 갖는일)	남	13	48	35	2	19.399 .000
	여	31	118	23	4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행복하다	남	7	25	43	23	11.017 .012
	여	14	66	79	17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남	9	29	34	26	32.991 .000
	여	27	95	44	10	
결혼보다는 일이 중요하다	남	19	55	20	4	13.500 .004
	여	11	101	58	6	

3. 조사대상자의 자녀에 대한 생각

조사대상자들은 자녀는 '반드시 필요하다(162명)'가 자녀는 없어도 '상관없음(80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딸은 꼭 필요하다는 항목에 여학생 21명(84%)이 남학생 4명(16%) 응답자 보다 높게 나타나 여학생의 경우 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경우에 자녀 성별에 대한 집착이 약화되어 그들의 부모세대나 조부모 세대에 비해 아들선호 사상이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자녀에 대한 생각

자녀에 대한 생각	성별		X^2, p
	남	여	
자녀는 반드시 필요	66(40.7%)	96(59.3%)	16.806 , .002
자녀는 없어도 상관없음	22(27.5%)	58(72.5%)	
아들은 꼭 필요	2(66.7%)	1(33.3%)	
딸은 꼭 필요	4(16.0%)	21(84.0%)	
기타	4(100%)	0(0%)	

조사대상자들은 실제로 갖고 싶은 자녀수에 대해 2명(47.1%)의 자녀를 두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다음으로 3명(18.2%), 1명(9.9%), 4명이상(5.5%)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실제로 갖고 싶은 자녀수

실제로 갖고 싶은 자녀수				
없어도 상관없음	1명	2명	3명	4명이상
53(19.3%)	27(9.9%)	129(47.1%)	50(18.2%)	15(5.5%)

또한 이상적인 자녀수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서도 58.4%가 2명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명이 16.4%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인지는 실제 갖고 싶은 자녀수와 같게 2명으로 나타났다.

〈표 10〉 조사대상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없어도 상관없음	1명	2명	3명	4명이상
40(14.6%)	19(6.9%)	160(58.4%)	45(16.4%)	10(3.6%)

출산계획이유에 대해선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88명 32.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70명 25.5%, 사회적 책임감 12명, 노후대비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감'이 20명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낌'14명 5.1%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부모로서 자녀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로 나타나는 전통적가치관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으며, 결혼과 출산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였던 경향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조사대상자의 출산계획 이유

출산계획이유 221명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	88(32.1%)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70(25.5%)
	노후대비	11(4.0%)
	종교적 이유	3(1.1)
	사회적 책임감	12(4.4%)
	기타	37(13.5%)
출산계획 없다면 그 이유는 53명	경제적 부담	20(7.3%)
	필요성 못 느낌	14(5.1%)
	부부만의 생활	9(3.3%)
	육체적 정신적 부담	7(2.6%)
	몸매유지	3(1.1%)

4. 상관관계분석

가족의 건강성(가족간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가치체계공유, 가족원간 유대)과 부모의 결혼생활만족, 결혼계획, 실제 갖고 싶은 자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결혼생활과 가족의 건강성(가족간 의사소통(r=.619), 문제해결능력(r=.571), 가치체계공유(r=.501), 가족원간 유대(r=.587))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상관관계 분석

	가족간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가치체계공유	가족원간유대
부모의결혼생활	.619***	.571***	.501***	.587***
결혼계획	.076	.119	.112	.094
실제갖고싶은 자녀수	.055	.033	.070	.018

***p〈.001

5. 회귀분석결과

성별, 결혼계획, 가족건강성이 결혼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p〈.001)과, 결혼계획(p〈.001)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생의 결혼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B=-.276) 결혼에 대한 태도가 낮았으며, 결혼계획이 있다고 응답할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가 결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의 정도는 18.2%로 나타났다.

〈표 12〉 회귀분석결과

	B	SE	β	t	p
상수	1.839	.192		9.579	.000
성별(여학생)	-.276	.065	-.233	-4.229	.000
결혼계획	.450	.074	.338	6.122	.000
가족간의사소통	-.052	.108	-.052	-.476	.634
문제해결능력	.057	.114	.059	.501	.616
가치체계공유	.004	.087	.005	.051	.959
가족원간유대	.117	.102	.115	1.144	.254
F	11.100				
R^2	.200				
adjR^2	.182***				

reference categogy : 남성=0, 결혼 계획 없음=0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미혼의 남녀대학생이 가족에서 경험되는 가족의 건강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가족에서 경험되는 가족의 건강성이 결혼태도와 자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가족의 건강성수준은 평균 2.90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에서는 가족의 유대, 가족간 의사소통,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 순으로 나타나 가족의 유대가 가장 높고 가치체계 공유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히, 하위영역 중 가족간 가치체계의 공유 부분은 가족의 건강성의 다른 하위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보이는데 이는 선행연구들(홍성례외, 2000; 최정혜, 2006; 김현경외, 2009)과 일치한다. 이는 세대 간의 가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면을 시사하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성증진을 위해서는 가족간의 가치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결혼 상태에 따른 가족의 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Duncan의 사후분석결과 가족간의 의사소통에서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혼과 사별이 경우가 별거・재혼보다 가족간 의사소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은 화자의 발화에 숨겨진 의도까지 청자가 즉 다른 가족구성원이 이해하고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가족 내의 갈등이 다른 집단 안에서의 갈등보다 더 크고 오랜 상처로 남게 된다. 만약 자신의 원가족에서 빈약한 의사소통을 경험한다면 가족내부의 응집력과 안정

성을 해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점에서 부모의 별거와 재혼을 경험한 가족구성원에게는 더욱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이 요구된다고 본다. 문제해결능력과 가족간 가치체계 공유에서는 사별이 재혼・이혼・별거보다 가족간 문제해결능력과 가족간의 가치체계 공유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결혼생활만족에 따른 가족 건강성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부모의 결혼생활 만족은 가족간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 가치체계공유, 가족원간 유대에서 유의한 차이($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76.3%가 결혼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의 주된 목적은 자녀를 갖는 일은 아니며,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가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행복하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보다 더 높게 나와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결혼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반드시 존속되어야 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혼보다 일이 중요하다'는 항목에서는 남학생・여학생 모두'그렇지 않다'가 높게 나타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사대상자들의 자녀에 대한 생각에서는 '자녀는 없어도 상관없음'(80명)보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162명)가 높게 나타났다. 출산율의 감소가 우려되는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들이 실제로 갖고 싶은 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에 대한 인지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미래 부모가 될 대학생들이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갖고 싶은 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경우도 1명을 두겠다는 것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미래사회의 가족은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무자녀 핵가족 중심의 사회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자들은 출산을 계획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를 통해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사회적 책임감, 노후대비 , 종교적 이유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출산계획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며, 부부만의 생활을 위해, 육체적 정신적 부담으로, 몸매유지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 결혼계획, 가족의 건강성이 결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본 결과 결혼의 태도에 성별, 결혼계획이 유의미한 영향 보였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결혼에 대한 태도가 낮았으며, 결혼계획이 있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의식의 변화, 여성의 입장에서 직업과 결혼을 성공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다는 불안, 독신여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관용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 등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가족의 건강성과 결혼태도와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의 대상을 표집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국한되었으며, 여학생의 비율이 더 많았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대학생들을 포함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생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가족의 경험을 측정함으로써 객관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못했다.

<참고문헌>

강경숙・변미희・정은미. (2005).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저출산 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권3호 pp127-145.

강복화. (2003).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 방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수정・최정혜. (2010). 농촌주부들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연구;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권 2호 pp71-85.

곽인숙. (2013). 노인과 예비노인의 가정건강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51권 1호 pp 1-17.

권대희・오윤자. (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권 1호 pp115-127.

김경신・김정란. (2008). 대학생들의 원가족 경험이 가족다양성 수용도 및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18권 pp61-71.

김보경・김한곤. (2005). 대구지역 대학생들의 결혼 및 출산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성건강 6권2호 pp47-73.

김승권. (2004).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전망. 한국사회학 27권 2호 pp1-32.

김한곤・서정연. (2012). 대학생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 한국사회학회, 2012-12권 pp757-771.

김현경・장상옥・유태명・최정혜. (2009).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1권 3호 pp 99-109..

김현주・이혜경. (2011).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가족과 문학, 23권 1호, pp77-104.

김혜숙・박재성・조은주. (2011). 보건의료계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보건의료산업학회지, 5권 2호 pp131-146.

김혜영・선보영・김상돈. (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도미향. (2005). 저출산시대 가족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부모의 자녀양육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2005년 한국가족복지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특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도미향. (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

향. 한국가족복지학 16권 4호, pp163-178.
백경숙・김효숙. (2013).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역할태도와 가족기능이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18권3호, pp205-223.
서병숙. (1994).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실천적 과제: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 17차 총회 및 학술자료대회집.
손흥숙. (2004). 저출산과 가족지원서비스. 2004년 한국가족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송정아. (2002). 부모의 부부간 갈등이 청년기 자녀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천안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준섭・양호정・백에스더. (2011). 장애아 가정의 가족건강성이 비장애 형제, 자매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7권 3호pp 1-24.
신효영・방은령. (2008). 청소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미래청소년학회지, 5권 3호 pp 95-113.
양남희. (2010).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따른 금전사용양식과 금전관리행동.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권 1호 pp 79-96.
양순미. (2001). 농촌가족의 건강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어은주・유영주. (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권 1호 pp145-155.
유영주. (1991). 건강가정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권 1호 pp45-63.
유영주. (1994). 건강한 가족을 위한 가족원의 역할. 제16차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유영주. (1995).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공보처.
유영주. (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유영주. (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권 2호 pp119-151.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뢰 한국사회학. 35권 6호 pp105-139.
이보람・김정옥. (2012). 대학생의 결혼 및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교양강좌 '결혼과 가족' 수강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권 2호 pp155-175.
이종원. (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지은. (1996). 청년기자녀가 지각한 부-모간 상호작용과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이 자녀의 결혼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성화・박영진. (2013). 초등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인터넷 중독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권 7호 463-472.
지영숙・이영호. (1998). 한국가정의 건전도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권 4호 pp233-250.
최미정. (2010). 대학생들의 결혼관・자녀관에 따른 출산정책 선호도에 관한 연구. 울산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선희. (1999). 한국인의 가족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정혜. (2005).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주말부부 남편과 아내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3권 3호 pp11-26.
최정혜. (2006). 맞벌이 교사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한국가정과교육학회 18권 3호 pp163-173.
허봉렬. (1996).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 제3회 가정의 날 기념행사.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
홍성례・유영주. (2000).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생활과학논집 4권 1호 pp 1-17.
황인실. (2003). 가족건강성과 중・장년기 성인남녀의 자아정체감.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Barnhill, L. R. (1979). Healthy family systems. Family Coordinator, 28 pp94-100.
Beavers, W. R & Hampson, R. B. (2003). Measuring family competence, Normal family processes(3rd ed) pp549-580.
Bumpass, Larry L. & Minja Kim Choe. (2003). "Attitudes toward Marriage and Family Life". in N.O.Tsuya, L.L.Bumpass(eds.)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urran, D. (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Minneapolis : Winston Press.
Lewis, J. M. (1989). How's your family? NY ; Brunner/Mazel.
Olson, D. H., & DeFrain, J. (2006). Marriage and Family-Intimacy, Diversity and Strengths. McGrow-hill Company.
Otto, H. A. (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Stinnett, N., & DeFrain, J. (1985). Secrets of strong families. Boston : Little, Brown & Co.
통계청 www.nso.go.kr

접수일(2013년 11월 15일)
수정일자(2013년 12월 9일)
게재확정일(2013년 12월 20일)